

## 어린이책 안내서



### 《그림책 육아, 어떻게 시작할까?》

문윤희 지음 | 샘터 | 200쪽 | 값 10,000원

그림책 편집자로 활동했고 지금은 어린이책 사이트 '동심여선'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는 문윤희 씨의 그림책 육아법. 직접 아이를 기르며 터득한 그림책 육아법부터 그림책 편집자로서 터득한 그림책 고르는 법까지 전문가적 안목으로 쌓은 그림책 정보들을 책 곳곳에 배치해 둔 점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하루에도 몇 권씩 쏟아져 나오는 그림책 속에서 어떤 양서를 골라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어린이책은 엄마가 골라주고 아이와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눠야 한다는 값진 메시지까지 전한다.

###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김은하 지음 | 현암사 | 336쪽 | 값 12,000원

“책은 부모가 읽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충고하는 책. 좋은 책을 찾는 것보다 나쁜 책을 가려내는 일이 필요하며 워스트북까지 거론하는 비평서다. 그림책은 유아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예술작품이라는 생각으로 아이와 책의 관계를 설득력 있게 풀어나간 점이 눈에 띈다. 어린이 독서지도의 원칙은 책에 아이를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책을 맞추는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 《쿠술라와 그림책 이야기》

도로시 버틀러 지음 | 보림 | 224쪽 | 값 12,000원

그림책을 읽음으로써 장애아로 태어난 쿠술라의 삶이 얼마나 건강하고 풍요로워졌는지 상세하게 기록한 그림책 이론서. <쿠술라 : 장애아 사례연구-만 3년 동안의 풍요로운 삶>이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다듬은 이 글은 장애아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에게 그림책이 어린이의 삶에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지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책으로 논리성은 물론이고 감동까지 담아내고 있다.

### 《노래야, 너도 잠을 깨렴》

백창우 지음 | 보리 | 248쪽 | 값 9,000원

아이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살아 있는 노래 만들기. 열과 성을 다해 온 백창우 씨의 책. 그는 “나한테는 노래가 집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노래와 인생 이야기를 이 책 속에 풀어놓았다. 윤동주, 김용택, 이오덕, 권정생, 이문구 등의 시 속에 숨어 있는 노래의 씨앗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틀에 박힌 일상 속에서 진실한 노래의 의미를 잃어가는 아이들의 현실에 진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원종찬 지음 | 창비 | 420쪽 | 값 15,000원

아동문학 평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저자가 여러 잡지에 기고했던 글을 모았다. 특히 우리 아동문학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문학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소개된 글에서는 아동문학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저자의 혜안이 빛나고 있는데 특히 아동문학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책·어린이·어른》

폴 아자르 지음 | 햇살과나무꾼 옮김 | 시공주니어 | 236쪽 | 값 9,500원

“좋은 어린이책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해답을 제시하는 책. ‘어린이’ 존재 자체에 대한 생각으로 책을 열고 있는 저자는 어린이가 창조적이고 뛰어난 상상력을 지닌 만큼 그들이 읽는 책도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훈 일색인 어린이책 대신 유쾌하고 쾌활한 세계를 열어줄 어린이책이 지금의 어린이들에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닌다.

### 《미래의 독자》

최윤정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38쪽 | 값 10,000원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뒤집는 독특한 어린이 책들을 소개한 비평집.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안겨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이들이 책을 ‘발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어른들이 체험하는 독서의 즐거움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주자며 어른들을 설득한다. 자신의 취향과 안목으로 골라낸 어린이책을 설득력 있게 소개, 비평하는 저자의 비평가적 안목이 눈에 띈다.